

민사소송법
2021년 11월

심화 강좌 안내



강사소개

약력

고대 법대, 고려대학원, 서울대학원(민소법)
월비스 변호사시험, 사법, 행정고시 학원 강사
성균관 · 한양대학교 10년 연속 민소법 특강기록 1위
12년 연속 사시 수석 · 최연소 배출 1타 강사

저서

통합 민사소송법, 사례 민사소송법, 민소법 암기노트
진도별민소법 최신기출문제해답(이 책의 강의노트 별매)
민사소송법과 부속법 조문집
소송기록과 요건사실, Q&A로 민소법 고수되기

기타 강의개설, 요청, 건의

이창한 카페(<http://cafe.daum.net/lee-minso>)(☎클릭)



1. 기본강의와 다른 심화강의

- 심화강의는 최근 복잡하고 어렵게 판시되는 많은 유사 판례와 어려운 쟁점을 비교분석한 최신 심화강의 판서노트를 통해 쉽고 정확하게, 빠르게 많은 판례와 쟁점을 이해할 수 있게 함.
- 예로 소제기와 항소제기, 소취하와 항소취하, 청구취지확장과 항소취지확장 비교 등, 제소전 사망 관련 상급심처리의 비교, 병합종류에 따른 여러 판례의 비교, 항소심과 상고심의 처리에 관한 판례 등의 비교를 통해 혼동 없이 정확히 개념과 원리를 이해함.

2. 판례와 사례에 다양한 접근

- 시험은 판례 사안에 기반한 사례문제가 많이 출제되므로, 개인서브를 만든다고 시간을 낭비하거나 학설 한 개 더 외우는 것보다 사례풀이 능력을 길러야 함. 이를 위해 많은 판례 사안을 비교 분석하여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

3. 일관된 표현, 정확한 표현, 정리된 표현

- 기본강의의 표현을 그대로 이용한 심화정리·사례풀이이므로 다른 교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표현의 혼란을 방지.
- 중요한 쟁점을 비교 정리해 주고 심화 이해시키는 강의로서, 지엽적인 쟁점으로 양만 불리는 식의 강의와 차별.

4. 모의고사 전 판례 완벽 소화. 최신 판례와 논점이 정리된 신판

- 본 심화강의에서는 모의고사에서 다룰 최신 판례나 중요 판례, 쟁점을 미리 비교 정리.

5. 수강대상

- 변리사시험, 변호사시험, 행시, 법원행시 등 비슷한 수준의 모든 시험 수험생이 들을 수 있게 강의.

● 자기 학습

- 심화강의 전후 또는 심화강의 중에 기출문제핸드북 또는 사례 민사소송법으로 사례문제를 풀면서 사례응용력을 높이세요.
- 개인서브를 만들면 여러 책을 보게 되어 기억력이 분산되고, 무엇보다도 서브가 정확하지 않아 개념 정리나 논리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지엽적인 것도 많이 출제되므로 서브에 정리되지 않은 것이 아주 많이 출제됩니다. 서브를 만들었더니 자기 서브에서 논점이 모두 나왔다는 수기에 현혹되면 안됩니다. 자기 미화에 불과하며 조잡한 서브로는 민소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고 2-3백 쪽 서브로는 답안지를 충실하게 적을 수 없습니다. 서브도 본 것이지 서브만 보고 시험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 서브 만들 시간에 기본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시간을 확보하시고, 되도록 사례 문제를 하나라도 더 풀어보세요. 개인 서브를 만들어 그것을 외우지 말고 기출문제 핸드북처럼 컴팩트 한 사례집을 보고 사례와 논점을 동시에 외우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고 고득점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요즘 여러 시험 기출문제를 보고 출제 경향을 제대로 파악하세요. 개인 서브 만든다고 올해 12월까지 다 날린 사람과 기본서 제대로 본 사람의 실력 차이는 내년 모의고사부터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 수강주의

- 본 강사의 기본강의를 듣지 않은 분은 기본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기본강의 내용이 훨씬 많고 중요합니다. 심화강의는 기본실력을 더 완벽하게 그리고 고득점으로 합격가능성을 높이는 강의이지, 소장 소개나 개념 소개에 치중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 기본강의를 다른 강사로 듣고 사례나 심화강의는 본 강사의 강의를 듣는 수험생도 가끔 있으나, 기본실력이 부족한 관계로 제대로 심화강의를 소화하는 경우가 매우 적었습니다. 본 강사의 기본강의를 수강한 분들도 시간 남는다고 엉뚱한 자료를 모으거나 다른 곳에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그럴 시간에 기본서 빠짐없이 읽고 심화강의를 준비하고 수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여러 학원에서 심화강의라는 명칭으로 기본강의 또는 정리강의와 별 차이 없이 강의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강사의 심화강의는 기본강의 또는 정리강의가 절대 아닙니다.

● 교재

- 22년대비 통합민사소송법(10월26일 출간), 22년대비 심화강의판서노트(실강 수강생의 경우, 판서노트는 학원에서만 구입가능). 통합민소법과 판서노트 모두 편집 변화와 최신 판례 등 내용 추가로 구판으로는 수강불가. 기본강의는 암기노트로 수강이 가능하지만, 심화강의는 암기노트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도 강의하므로 암기노트로 수강불가.

● 강의 횡수

- 24회로 진행합니다. 아래 쪽에 소개된 최근 기출문제 들을 보세요. 놀랄 정도로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문제를 혼자 공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강의 횡수가 늘어나더라도 본 강사가 기출된 지엽적인 논점과 난해한 최신 판례를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의 횡수가 매우 많습니다.
- 심화강의 조차도 리마인드겸 초스피드로 기본적인 내용만 훑어보고 바로 서브노트나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수강하시면 요즘 기출문제에 대응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브노트로 대비되는 시험인지 아래 기출문제를 보시고 반드시 출제경향을 확인하세요 (이창한 카페 [차례 파일 등] 메뉴에 법무사, 법원행시 최근 기출문제 파일이 있어요).

● 실강수강료

- 영상강의도 포함되므로 수강료는 20회로 계산(실강 수강생은 추가특별할인). 아래 진도표는 실제 강의의 진도와 다소 맞지 않으니 항상 강의 끝난 부분부터 50쪽 예습할 것.

● 실강생 혜택

- 실강은 특별할인(10%)으로 동강과 같은 수강료.
- 실강수강생에 한해 핸드폰으로도 암기할 수 있는 핸드폰용 암기 파일 12월 말 증정(강사의 다음 카페에서 [신간교재비교] 메뉴에 샘플 있음. 학원에 문의 말고 카페로 문의).

● 실강(14회분)과 영상강의(10회분)를 병행한 강의

- 20년도에 코로나로 첫 날을 제외하고 2일차부터 24일차 종강일까지 모두 영상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영상강의가 실강보다는 생동감은 다소 떨어지지만 심화강의처럼 아주 디테일한 강의를 하기에는 매우 적합함을 발견하고 10회는 영상강의로 진행하겠습니다.

● 강의진도, 수강요령

- 본인 사정에 따라 실강의 모두 듣고 영상강의를 청취해도 되고, 영상강의와 실강의를 병행하거나 영상강의 먼저 수강을 시작해도 됩니다.
- 영상 강의는 11월 2일부터 오픈하여 실강의 종료 후 15일까지 열어드립니다.
- 영상 강의는 첫 주에는 4일치 분 정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둘째 주부터는 실강과 병행되는데다가 최신 쟁점과 최신 판례는 강사도 강의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소 늦을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지금은 진도를 빨리 나가는데 목표를 두어선 안 됩니다. 집중해서 심도있게 이해하면서 기출문제집과 병행하여 공부하시면 더 효율적입니다.
- 영상 강의 제작 상황은 학원직원도 모르니, 진행상황은 이창한 강사 카페에 문의하세요.

실강의14회 진도 : 2차 합격자 발표 후 11월12일부터 12월6일 월화목금 오후2시에 실강진행.	
1회	〈관할〉 직무관할·토지관할, 합의·변론관할, 이송, 전속임의관할, 재판권
2, 3회	〈당사자〉 당사자확정(표시정정, 성명모용, 사망)
4회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과 대위소송.
5, 6회	소송능력, 변론능력대리, 조합. 〈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소송의 개시〉 소의 종류 소의 이익(장래이행소 등)
7, 8회	〈소송물이론〉 〈소의 제기〉 〈재판장의 소장심사〉 〈소제기 효과〉 청구취지와 원인, 중복제소, 〈대위소송〉
9, 회	〈변론〉 〈심리원칙〉 쌍방심리주의,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 변론주의의 보완책으로서 석명권,
10회	석명권, 적시제출주의, 집중심리주의, 소송지휘와 이익권. 〈변론의 준비〉 준비서면, 준비절차
11회	〈변론의 내용〉 공격과 방어, 부인과 항변, 소송행위, 소송계약,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12회	〈변론의 실시〉 〈기일의 결석〉 일방의 결석, 쌍방의 결석 〈기일〉 〈기간〉 〈송달〉 〈절차정지 절차중단〉
13회	〈증거〉 증명대상 불요증사실(자백, 현저한 사실) 〈증거조사개시〉 〈증거조사실시〉 증인신문, 감정,
14회	서증(문서의 증거력), 당사자신문, 증거보전, 자유심증 증명책임 *주의: 취하포기인낙화해는 기판력 후에 강의함
영상강의10회 진도 : 11월 2일부터 업로드되어 수강가능합니다.	
15,16회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판결의 종류, 일부 판결, 기속력 확정력, 기판력 - 시적·객관적 범위,
17,18회	주관적 범위, 형성력, 집행력, 반사적 효력, 판결의 편취, 일부청구의 제문제, 변경의 소
19회	〈소송종료선언〉 〈당사자에 의한 소송 종료〉 취하(재소금지) 포기인낙, 화해
20회	〈복수청구소송〉 청구의 병합, 소의 변경, 중간확인소 반소
21회	〈다수당사자소송〉 통상공동소송, 필수적공동소송, 소의 주관적 예비적병합 주관적 추가병합, 선정당사자,
22회	〈참가〉 보조참가, 공동소송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소송고지, 독립당사자참가,
23회	임의적 당사자변경(피고경정,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소송승계〉 당연승계 특정승계
24회	〈상소〉 상소요건, 불이익변경금지, 상소불가분원칙,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재심)



- 1타 강사의 압도적 적중률을 확인하세요. 다른 수험자료는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사법시험뿐만 아니라, 변리사시험에서도 항소심에서 이송, 채무부존재확인소와 기관력(심화강의내용), 제3자 반소 등 오직 이창한 모의고사에서만 다룬 논점이 시험에 그대로 출제되었고, 18년에도 항소일 부취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수험자료의 오류지적 내용 등이 그대로 출제되었으며, 행시, 법원행시 등에서도 이창한 모의고사문제가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16년에 사해방지참가 두 개 비교 사례 모의고사 문제가 16년 변호사시험에 모두 기출. 17년에는 ‘고려대병원 사건’이 거의 그대로 법원행시에 기출, 19년 행시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도 이창한 모의고사에만 있었던 문제). 19년 변호사시험 ‘변종후 승계인여부’ 문제는 수험서 중 통합민소법에만 소개된 판례임.

- 20년 변리사시험 기출문제 중에서 이창한 사례집 20년판과 완전히 동일한 문제입니다. 얼마나 동일한지를 아래 책을 보고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세요.

변리사기출 문제-3 설문(1) [사례집4-3-3B 모순관계가 아닌 사안]과 완전히 동일한 문제. 통합 P22에도 있고, 심화강의 사례강의 핸드북강의에서 모순관계가 아닌 이유를 계속 설명.

변리사기출 문제-3 설문(2) [사례집4-3-1C 소유권확인소의 소송물]과 완전히 동일한 문제. 통합P35.

변리사기출 문제-4 설문(1) [사례집7-2. 재심의 관할법원]과 완전히 동일한 문제. 20년 이창한 종합 모의문제2의 논점과 통합C75의 논점이 결합된 문제.

- 21년 변리사시험 기출문제 중에서 이창한 사례집 21년판과 완전히 동일한 문제입니다. 얼마나 동일한지를 아래 책을 보고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세요.

변리사기출 문제-1 설문(1) 대위소송의 적법 요건 [통합 I02,03에 매우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변리사기출 문제-1 설문(2) 공동소송참가시 일부청구 [통합S22-1, 사례집5-13A(2)와 거의 동일, 모의고사 뿐만 아니라 기본강의, 사례강의, 심화강의에서 강조했던 판례]

변리사기출 문제-2 설문(1)(2) 파기환송 후에 항소취하 효력 [사실관계와 각 설문 모두 이창한 모의고사에서 처음 출제된 문제와 동일함. 그 후 20년판 사례집 6-2-2에 실리고 사례강의에서 아주 상세하게 강의함]

변리사기출 문제-3 설문(1)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 [통합P20-1, 사례집4-3-1D, 핸드북 4-3-1D, 모의고사A형2회와 거의 동일한 문제]

변리사기출 문제-3 설문(2) 추완항소 [핸드북 6-5-1, 사례집 6-5-1의 목차와 내용 이용 풀이가능]

변리사기출 문제-4 설문(1)(2)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청구 [모의고사B형 8회와 같은 문제. 통합Q11 박스와 동일한 문제, 사례집5-2 참조]

- 21년 법무사시험 기출문제(기출문제파일을 강사카페 자료실 [차례 파일 등]메뉴에 올려 놓았습니다)

법무사기출 문제-1 설문1 甲은 X부동산 지상의 분묘들이 그대로 존재하자 乙과 丙을 공동피고로 각 분묘굴이 및 각 해당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 …… [통합, 암기노트P50의 사례 그대로 출제되었다. 여러 학원의 교재에 이렇게 자세히 사안을 똑같이 설명한 책이 있는지를 찾아보기 볼 것. 왜 본 강사의 책과 동일한 사례가 매년 이렇게 많이 출제되는지 그 이유를 강의에서 설명했다. 개인서브나 만들고 학원 수험 자료를 모은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미리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무사기출 문제-1 설문2 판결경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개정판 암기노트P13의 판례사안 그대로 출제됨] “경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제211조 제3항의 반대해석상 즉시항고할 수 없고 제449조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라는 판례가 출제됨. 요즘 이렇게 지엽적 쟁점이 출제됨. 대부분 수험서·서브책에 언급이 없는 판례.

법무사기출 문제-2 설문1 쌍불취하와 항소취하간주 [통합K93이하]

법무사기출 문제-2 설문2 취하간주 후 그를 다투기 위한 방법 [통합K96과 완전 동일한 판례]

- 20년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지엽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으나 전체 문제가 통합, 사례, 모의고사의 논점. 21년 시험은 아직 안 봄)(기출문제파일을 강사카페 자료실 [차례 파일 등]메뉴에 있음)

법원행시기출 【문 1】 설문1 가. 소장각하 후 인지보정 가부 [통합H18]

【문 1】 설문1 나. 재도의 고안 [통합V34. 한 번도 모든 시험에 사례로 출제되지 않았던 지엽적 문제로서 대부분의 수험서에 두 세줄 언급되어 있다. 통합에는 15줄 분량으로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이런 지엽적인 문제까지 완벽하게 대비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하지만 평소때 한 번이라도 읽어둔 사람과 전혀 읽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매우 크다. 공부하면서 ‘항소’라는 제목으로 서브노트 한쪽, ‘항고’라는 제목을 서브노트 한쪽, 이런 식으로 서브노트를 만들어 가며 공부하는 수험생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아주 포괄적인 문제는 나오지 않으므로 그런 식의 서브를 만드는 것은 무의미하게 시간만 허비하는 일이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평소때 제대로 된 책을 보고 항소 안에서 또는 항고 안에서 중요한 여러 판시 사항을 세밀하게 공부해 두어야 한다]

법원행시기출 【문 1】 설문2 등기말소청구와 피고적격 [통합D48 사례2와 완전히 동일, 사례집 2-10-1A와 동일한 문제]

법원행시기출 【문 1】 설문3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 [통합M18,26. 사례집3-14-4A 같은 문제]

법원행시기출 【문 1】 설문4 예비적 병합이 될 수 없는 흡수(포함)관계 [통합Q15. 예비적 청구가 부적법한데 적법하다고 해설한 학원 해설도 있으니 유의할 것]

법원행시기출 【문 1】 설문5 진정명의회복 위한 이전등기청구 [통합P72-1, 사례집 4-3-1A와 동일]

법원행시기출 【문 2】 설문1-1 소취하의 기망취소 [통합K72-3과 同, 사례집 3-14-3A 설(3)과 동일]

법원행시기출 【문 2】 설문1-2 재소금지와 새로운 권리보호이익 [통합O25]

법원행시기출 【문 2】 설문2-1 소송고지와 참가효 배제사유 [통합S38, 사례 5-11-3유사]

법원행시기출 【문 2】 설문2-2 참가효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또는 화해권 고결정) [통합S16, 이창한18년기초모의, 19·21년B형모의고사에 연속출제. 이 중요판례가 소개 안 된 수험서도 있다. 항상 중요판례가 충분히 소개된 책으로 공부할 것]

법원행시기출 【문 2】 설문3-1 수인의 임차인과 선정당사자 선정 [통합R55 설문(2)와 동일]

법원행시기출 【문 2】 설문3-2 선정과 조건 [통합R58과 동일, 사례집 5-10-1A 설(3)과 동일]

법원행시기출 【문 2】 설문4-1, 4-2 이의권 상실 [4-1. 4-2. 문제가 강사가 임의로 제작한 사례집 3-17B의 (A) (B)사례와 완전 동일하게 출제됨, 이창한 모의고사에도 출제]

- 21년 행시 등 기타 기출문제에서도 본 강사의 자료에서 모두 출제되었습니다.